



거창양민학살에서 배우는 12.3친위정변

거창쪽으로 차
머리를 돌렸
다. 대병에서 황매터
널을 지나 오부를 거
쳐 생초로 향하던 길
이었다. 10여년 전 거
창과 산청을 잇는 그
고갯길을 닦고 있었는
데, 이제 그 길을 거꾸
로 달렸다. 오른쪽으
로 거창사건추모공원

이 보였다. 나무가 자라서인지 맑은 햇살에 비친 공원은 제법 근사해진 모습이었다. 폭염때문인지 찾는 발길이 없으니 적막하다. 조금 더 달려서 신원국민학교에 미치기 전에 좌회전을 했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朴山골. 1951년 2월 11일 거창양민학살이 벌어졌던 장소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의 광기

가해자는 빨갱이 소탕에 눈이 뒤집힌 이승만 정권의 국군 11사단(최덕신 준장) 9연대(오익경 대령) 3대대(한동석 소령). 가해자는 건벽청야堅壁淸野 작전으로 인근 주민을 신원국민학교에 모은 뒤 공무원 가족을 제외한 517명을 박산골로 몰아넣고 난사했다. 단 세 명만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국군은 5월 9일부터 삼일 동안 덕산리(84명), 대현리(100명) 등을 돌면서 인근지역 양민 총 719명을 학살했다. 박산골 학살장소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여기는 1951년 2월 11일 대한민국 일부 국군이 자기 나라 국민을 집단 학살한 곳이다. 국군 제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지리산 지역 빨치산 토벌을 구실로 이곳에 진주한 후, 인근 주민 1,000여 명을 강제로 신원초등학교에 모으고 그 중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가족들을 형식적으로 골라내고 남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다. 군인들은 이들에게 총을 쏘아 죽이고 시체를 나뭇가지로 덮어 놓고 회백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아직도 골짜기 바위마다 선명히 남아있는 총탄 자국이 그때의 비극을 짐작하게 한다.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은 모두 517명으로 대다수가 어린이, 노인, 여자들이었으며... 이곳에 보존비를 세워 살아있는 자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004. 4).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웹집에는 “02.10: 한동석은 덕산리 내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과정리 면소재지로 이동해 군병력을 대현리, 와룡리, 중유리 마을에 투입해 마을마다 가옥은 불질러 태우고 가축과 양식을 강탈하며 무법 천지로 만들어 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하여 과정리로 몰아가던 중 날이 저물자 와룡리, 대현리 주민 100여명을 탄량골 하천 계곡에 몰아 넣고 총으로 처참하게 학살, 시신 위에 나무가지를 덮고 불을 질러 태워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02.11: 한동석은 10일날 4개 리에서 끌고 온 주민 1,000여명을 신원국민학교 교실에 몰아넣고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질려 있는 주민들에게 (인공가 불려라.) 군가 불려라, 밤새도록 교대해가며 광란

을 부리다 날이 밝아질 때 주민 517명을 박산골짜기에 몰아 넣고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는 모두 사용하여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피바다를 이룬 시신 위에 마른 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기름을 뿌려 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자세하게 적었다.

거창양민학살, 제주4.3학살, 12.3친위정변

당시 25세였다는 한소령의 9연대(3대대)는 1948년 한라산에서 짐승을 사냥하듯 도민을 도륙한 송요찬 소령의 9연대와 차이가 없다.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에 눈이 먼 이승만의 광기(반공)이다. 친일종미로 기독교를 폐찬 수구들의 빨갱이 낙인과 주술呪術이다. 이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역사를 왜곡했다. 학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고 박산골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3년이 지난 뒤 겨우 유골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담화문에서 희생자들은 빨갱이 협력자로 군법회의에 넘겨 처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계엄민사부장이었던 김종원은 국군 1개 소대를 인민군으로 위장하여 국회조사단을 습격했다. 1949년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숨씨 그대로다. 1960년 11월 18일 박산합동묘역위령비를 세웠으나 이듬해 6월 25일 박산묘소는 파헤쳐지고 위령비문은 정으로 훼손되고 땅에 묻혔다. 일이 커지자 책임자들은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소대장까지 처벌되었지만 얼마 뒤 사면으로 풀려나 호의호식했다. 50년이 지난 2004년 3월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거창양민학살”은 “거창사건”이 되어버렸다. 수구세력의 추잡한 몽니와 몽개기와 집요한 말공작의 결실이였다.

제주4.3학살도 다를 것이 없다. 2000년 관련 4.3특별법이 통과되고 2003년 제주4.3평화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숨죽이고 지냈고 가해자들은 땀땀거리며 살았다. 예컨대, 당시 제주 전투사령관이었던 유재홍 대령은 한국전쟁에서 국군 2군단과 3군단을 전멸시켰지만(그래서 군작전권을 미군에게 넘겨줬지만) 국방장관까지 해먹었다. 또 제주4.3의 참상을 고스란히 기록한 다랑쉬굴(1992)을 발굴하여 알린 자들은 쫓겨다니야 했고, 공산주의자(남로당)들의 폭동이라는 수구세력의 말폭력을 견뎌야 했다. 법과 무관하게 자행된 수구기득권의 더러운 패악질이였다. 아무리 공산주의자라 해도 양민을 개돼지 사냥하듯 잡아죽여서야... 이승만을 등에 업은 수구기득권의 광기에는 벌거벗은 힘과 잇속이 용솟음칠 뿐, 법과 양심은 없었다. 이런 광인들에게 빨갱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2024년 김여사 정권의 12.3친위정변은 어떠한가? 약 75년이 지났지만 수구기득권의 정신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술과는 담을 쌓은 자들이니 창의성이 빵점이다. 식상하다. 윤석열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중북”을 빼면 제주4.3학살(1948)과 거창양민학살(1951)에 관한 이승만 정권(미군)의 발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법철자, 논리, 상식, 윤리와 무관한 “내 맘대로”일 뿐이다. “나, 재 시러... 치워” 수준이다.

친위정변이 성공했다면 “서울12.3학살”이었을까?

친위정변이 허망하게 실패했길래 망정이지 성공했다면 결과는 참혹했을 것이다. 먼저, 수거대상이 된 자들은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배 안에 차곡차곡 실려 연평도 근해에서 폭사당했을 것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김명수, 조해주, 양정철, 권순일. 이 명단은 친위정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공공이 아닌 사私이고, 법이 아닌 감感이고, 사실이 아닌 사심이고, 명분이 아닌 명신의 히스테리다. 어쩌면 이들은 죽기 전에 김명신 앞에 개처럼 끌려가 역사에 길이 남을 해괴한 형벌을 치욕으로 받았을 것이다.

둘째, 국회에 몰려가 계엄군에게 저항한 시민, 야당 의원, 보좌관, 계엄체제에 동의한 여당 의원 등은 처단되었을 것이다. 영현백도 아까우니 김포(쓰레기 매립지)나 난지도에 쌓아놓고 총과 폭탄으로 날려버렸을지 모른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다는 잔혹한 처단방법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죽어갔을 시민의 수가 1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하니 제주4.3학살에 견줄 수 있음이다. 만 명의 기일이 똑같은 그 참혹한... 하마터면 “서울12.3학살”이 될 뻔했다.

세째, “서울12.3학살”로 처단된 자들에 대한 얘기를 수십년 간 감히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지인, 친인척, 언론인, 학자들은 빨갱이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물고기밥이 되었을 것이고 처자식들은 죄인이 되어 취직은 커녕 동네에서 발붙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행여 매장이라도 되었다면 유골을 수습하는데도 수 년이 걸렸을 것이다. 시민을 학살해놓고 그 지역을 계엄령으로 밀봉했을 테니 말이다. 유족들은 영정도 명패도 놓지 못한 채 원없이 곡도 못하고 눈물을 삼켜야만 했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묘역과 위령비가 세워져도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네째, 친위정변에 성공한 권력은 종북 빨갱이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입법독재로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은 것이 사실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만여 명의 반국가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일거에 척결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줄줄이 방송에 끌려나와 부정선거를 고변하고 석고대죄했을 것이다. 사실이다 아니든 상관없다. 요란하게 대국민 발표를 한 이상 안 믿으면 종북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아 매장시키면 그만이다. “너는 법대로, 나는 멋대로”인 자유민주주의의 아닌가. 미치광이들이 벌이는 난장판이 된다.

다섯째,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학살을 자행한 자들은 승승장구 진급과 승진을 거듭

국립중앙박물관의 "먹거리"가 불편하다

했을 것이다. 분에 넘치는 권력에 비례하여 수많은 뇌물을 받아 치부했을 것이다. 현재 비상계엄에 관련되어 구속되었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계엄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한 자들은 빨갱이와 내통한 죄로 총살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나랏일이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그들만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밤새 줄을 몰랐을 것이다. 사라진 야당의원들의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정변세력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로 채워졌을 것이다. 군대, 검찰, 경찰, 방송, 언론,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김여사 제국은 이렇게 완성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훗날 친위정변이 법으로 단죄된다고 해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50년 후에야 시작될 것이다. 윤건희 세력들이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말공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종북이다, 빨갱이다, 반국가세력이다... 뭘 하자고 해도 “야당과 유족들이 징징대고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니 뭐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라면서 떨떠름해 했을 것이다. “12.3사건추모공원”을 세워도 희생자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억울하게 죽었음을 결코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런 비문이 새겨졌다 해도 정으로 몽개져서 땅에 묻혔을 것이다.

그러니 12.3친위정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장병들이 얼마나 장하고 고마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인가? 깨어있는 주권자의 사자후獅子吼에 수구정변세력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일이 더디고 힘들지만 지금 뚜벅뚜벅 사필귀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까닭이다.

박산골로 향한 발걸음은 최소한의 부끄러움

1951년 거창양민을 몰살시킨 9보병연대는 1948년에는 제주 4.3학살을 자행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토벌작전에 회의적이었던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고 선량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송요찬의 9연대 얘기다. 이 부대는 1975년 11(기동)사단으로 예속되었다. “젓가락사단”으로 알려진 부대다. 부대 역사관에 빨갱이 소탕 업적으로 분칠한 부대다. 박산골로 향한 발걸음은 아마도 한때 이 부대를 스쳐 지났던 장교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 국민의 군대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올린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아이들에게 서울은 초행이다. 서울의 모든 것이 낯선 모양이다. 생각보다 근사한 건물에 많은 전시물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 중앙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 박물관은 어떠한지 궁금했었다. 이제는 K-pop Demon Hunters 바람을 타고 많은 외국인들이 중앙박물관에 줄을 선다고 하니 놀랍다. 막내 뒤를 따라 다니느라 고생을 했지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의궤儀軌, 고려청자가 기억에 남았다.

굳이 "먹거리"라고 써야 했나?

벽면을 돌고 돌아 전시물을 구경하다가 문득 어떤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먹거리.” 몹시 거슬리는 말이다. 전시 내용은 당시에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음식”이나 “먹을거리”로 적어야 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호불호가 없는 정확한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구태여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을 써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하물며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고 있는 중앙박물관임에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먹을거리는 “머글거리”로 읽고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이라고 정의했다. 먹거리는 “먹거리”로 읽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이라고 했다. 전자는 재료를 후자는 조리된 상태(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를 강조한다는 설도 있지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먹거리”를 음식이나 먹을거리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나? 어쩌면 “먹거리”가 먹을거리의 준말로 전라도에서 사용하던 방언인데, 한자인 음식과 영어인 food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서둘러 찾다가 그리되었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하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먹을거리”는 이견이 없는 표준말이고 그 뜻은 음식이나 식품이다. 둘째, 먹다에서 파생되었을 “먹거리”는 실수나 착오로 만들어진 말이며 우리말 어법을 파괴하고 있다. 세째, 말을 멋대로 줄여서 사용하려는 세태에 부합하는 말로 재미를 핑계로 어법을 몽개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정희찬의 말대로 food에 해당하는 말로 “먹을거리”를 생각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근본없는 말을 생각 없이 재미로 하나 둘 하다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헛갈리게 되었다. 2011년에는 “먹거리”가 표준어 대열에 올라섰다.

먹거리? 목거리? 스킨십?

애들은 그렇다 쳐도 장난질한 말을 표준어로 지정한 국립어학원의 처사가 황당하다. 어이없는 일이다. 정확한 말이 있음을 알려주고 왜 “먹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었어야 했다. 어리석은 자들이 다수여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어야 했다. 국가기관으로서 말법과 어법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조치다. 필요하면 표준국어사전이 아닌 유행어사전 같은 것을 만들어 어법과 무관하게 쓰이는 말을 적어놓을 수도 있었다(흔히 많이 사용하는 skinship은 어법에 부합하는 꼴이지만 공식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런 무책임한 짓은 박물관 근처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어법을 명백하게 파괴한 사례로 꼭 박제해놓았으면 한다.

누군가가 한자인 客館이나 영어인 hotel을 대신하는 말로 “목거리”(목을 만한 집이나 그런 집이 모여있는 골목)를 만들어 재미로 널리 퍼뜨렸다고 해보자. 어법으로 치면 “목을거리”가 맞을텐데, “목거리”가 유행하면 같은 논리로 국어사전에 등재할 것인가? 허면 방송에서도 흔히 나오는 “스킨십,” “썸남,” “썸녀,” “벤봉,” “심쿵”은 어떠한가? 친구들끼리 술마시며 “먹거리”를 찾고 “부먹”이네 “찍먹”이네 한들 누가 흥을 볼 것인가?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나라의 보배인 한글을 비웃는 “먹거리”가 웬말인가?

그렇다고 순우리말을 버리고 한자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한자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다. 오직 순우리말만 쓰자는 것도 아니다. 한글이든 한자든 많은 사람들이 쉽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자는 것이다. 한글의 말법과 어법에 맞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내용과 상황에 맞게 품위있는 말하자는 것이다.

몇년 전 학회에서 “돌봄”이란 말을 듣고 의아했다. 돌봄서비스, 돌봄정책이란다. “돌보기”라는 명사형도 있고 “건사”라는 명사가 있는데도 굳이 동명사로 만들어 쓰니 어색하다. 돌보기, 돌보기정책, 돌보기지원 이러면 안되나? 앞으로는 꽃가꾸기가 아니라 꽃가꿈인가? 그러면 나무심기나 쓰레기줍기는 어찌하려는가? 아마도 영어단어 care에 해당하는 말을 찾다가 돌봄을 착안한 모양인데, 어법에 맞지 않는다. 이러니 “돌봄”에서 “늘봄”까지 생각없이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해당되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학자들의 게으름과 한글에 대한 가벼운 태도를 지적하고 싶다.

많은 화자의 생각을 담은 그릇

“먹거리”에 심기가 불편한 것은 말이란 단지 화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

라 생각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즐기는 줄임말로 폼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화자의 무책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자산인 한글의 기본을 흔들고 말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내뱉는 말버릇의 가벼움을 탄식한다.

12.3비상계엄을 전후한 무수한 거짓말과 말공작을 생각해 보라. 무책임한 자들이 아무렇게나 뱉어낸 오염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나고 어지럽게 만들었던가. 고발사주는 “제보사주”로, 바이든은 “날리면”으로, 뇌물로 받은 디올백은 “조그만 파우치”로, 계엄령은 “계몽령”으로,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목적”으로...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되치기한 수구세력의 수작 그대로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헛갈려하는 순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걷어 차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더럽혀진 말에 담겨진 음흉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먹거리”에 담겨진 우리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못된 말습관을 고쳐야 한다.

장충동 먹자골목과 “먹거리”

수년 전 버스를 타고 신설동, 동대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단, 장충단 체육관, 약수역을 지났던 기억이 났다. 장충단길을 지나면서 오른쪽을 보다가 태극당 옆에 “장충동 먹자골목”이라고 적힌 입간판을 보았다. 못해도 7-8미터는 되어 보였다. 장충동 족발로 유명한 동네였다. 사람들은 족발거리 혹은 족발골목이라고 불렀다. 모두 무슨 뜻인지 분명하다. “먹자”라는 말을 썼으니 점잖은 표현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시오골목”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어감으로 치면 울 사람도 안 울 것이다). 어쨌든 뜻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우리말법에도 부합하고 친근한 말이다.

어쩌면 “먹거리”는 먹자거리의 (잘못된) 준말로 각종 식당이 모여있는 먹자골목이라는 뜻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먹거리”가 음식이나 먹을거리가 아니라 목거리(목을 거리나 목자거리의 잘못된 준말)처럼 먹자거리가 된다. “먹자골목” 입간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조선시대 안국동 근처에 먹(墨, ink stick)을 파는 상점이 몰려있었다고 치자. 아님 어느날 서예가 대유행하여 인사동에 먹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고 치자. 아마도 사람들은 “먹거리”나 “먹골목”이라고 부르고 “먹꺼리”가 아닌 글자 그대로 발음할 것이다. 그러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뭐라 기록할 것인가? 비슷한 맥락에서 “목거리”는 여관인가(“목꺼리”로 발음)? 아님 맛있는 목을 파는 가게가 몰려있는 곳(“목거리”로 발음)인가? 그것도 아니면 먹거리의 점잖

은(?) 표현인 “墨거리”인가? 가가可呵. 먹거리에서 비롯한 어처구니없는 이 혼란을 어찌하려는가?

먹을 파는 “먹거리”는 어떠한가?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또다시 장충단, 약수역을 지나면서 옛 생각을 떠올려 봤다. 바야흐로 말장난, 말공작, 언어과잉, 언어파괴의 시대다. 언어의 모호함에 기대어 자신의 잇속(재미와 제멋대로)을 차리고 남을 해코지하는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화려한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과 뻔뻔한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활개치고 다닌다. 지난 주술(점괘와 술) 정권에서 설친 인사들을 보라. 자신이 아무렇게나 둘러댄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며 책임지지도 않는다. 선량하고 무구한 백성들만 피명이 들어 아파할 뿐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들 쉽고 뜻이 분명하고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했으면 한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상황에 맞게 가려서 사용했으면 한다. 의미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뜻을 전하는 말이 되었으면 한다. 거짓없이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그런 진솔하고 사람냄새나는 말을 회롱하며 은근한 정을 나누었으면 한다. 나아가 언어의 말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사람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